광주 4가구 중 1가구 月수입 100만원 미만

광주시, 9798가구 대상 '사회의식조사'

광주지역 4가구 중 1가구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4명은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9일, 시민 9798가구(2만1065명)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의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17일부터 30일까지 방문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0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0% "외국어고 필요"…66% "교육비 부담"

일자리 창출·복지사업 확대 우선 시책 꼽아

이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만~300만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원 27.5%, 300만~400만원 12.5%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23.4%가 나왔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00만~200만원 37.8%, 200만~300만원 21.0%로 100만~300만원이 전체의 58.8%를 기록했으며,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33.8%를 차지했다.

'부모님의 노후 생계를 누가 돌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가족'이란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가 34.7%, '정부·사회가 해결해야 한다'가 17.5%였다.

자녀교육비에 대해서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66.4%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1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어고 설립에 대해서는 4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8.3%에 그쳤다. 그저그렇다는 답변은 31.7%였다.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이상이 38.0%로 가장 많았고, 4년 미만 21.5%, 8~10년 20.5%, 4~6년 2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8~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5기에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경제분야(일자리 포함)가 53.1%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보건)분야 22.3%, 환경분야 8.1% 순이었다.

분야별 우선시책과 관련해 경제분야는 신규일자리 창출(60.1%), 문화분야는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산업육성(44.1%), 생태분야는 푸른길 공원 및 경관도시 조성(41.3%), 인권·평화분야에서는 인권정책과 복지사업확대(50.1%)가 각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0.15%포인트다.

/홍행기기자redplane@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미분양땐 지원"

광주시 대책 마련 … 6~7개 건설사 참여 의사 밝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시가 선수촌 미분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9일 "광주U대회 재건축 아파트가 미분양될 경우에 대비, 최근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미분양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미뤄왔던 6~7개 건설업체가 선수촌 재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에 대한 비용 200억원 이외에 미분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올 하반기부터 참여의사를 타진한 모든 건설업체들이 행정기관의 보증 또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시기를 놓칠 경우 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최근 몇 년 새 외곽 택지지구 개발을 억제해왔고, 기존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U대회 선수촌 아파트도 우려할만한 미분양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시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시공업체 컨소시엄이 구성될 경우 2011년 조합·시공사·도시공사 협약체결,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이주 및 건물 철거 등이 마무리돼 2012년부터 선수촌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정주공재건축조합 측도 최근 광주시에 '광주시가 미분양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증을 한 뒤 분양이 되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미분양에 대한 보증을 설 수는 없으며, 다만 미분양이 발생할 것에 대비, 지원대책을 마련했을 뿐"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며, 건설업체들이 이 대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건립이 국내·외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인책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8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이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하진, 황인숙, 이성부, 윤후명, 강정규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감사원·행안부 공직기강 특검 착수

금품수수 등 집중 감찰

감사원은 느슨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20일부터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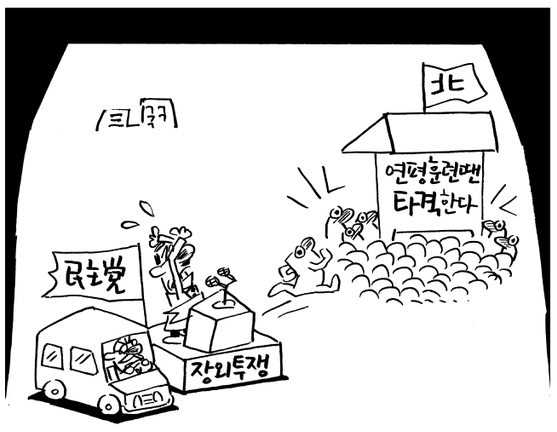
이번 감사에서는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공직부패 신고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각급 기관에서 남은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도말 예산집행에 따른 재정낭비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장비와 물자확보 상황, 도로·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댐·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도 특별 공직감찰반을 구성, 20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감찰에 착수한다. 금품수수 행위와 특혜성 인사뿐만 아니라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민원처리 지연도 감찰 대상이다. 근무시간이나 점심때 과도한 음주행위와 연말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감찰에서 위법행위와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미치겠다, 장사 또 망쳤다

"다문화·가족사 문제 소설 강세"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 … 총 1100여편 응모

201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가 지난 18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15일 마감한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 , 소설 , 동화 세 부문에 걸쳐 총 1100여 편이 응모했다.

이번 신춘문예 심사는 소설 부문에 윤후명·서하진(경희대 국문과 교수)씨, 시 부문에 이성부·황인숙씨, 동화 부문은 강정규(계간 '시와 동화' 발행인)씨가 각각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다문화, 가족사 등 사회문제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눈에 띄었고, 시는 잔잔하게 일상적인 감동을 담은 서정시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면에 치중해 기본적인 문장쓰기에 실패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신선한 주제를 택하고서도 감동과 울림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운 작품들이 있었다"고 평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1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1년 1월 중순 광주일보 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상금은 소설 300만원, 시·동화 각각 100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31사단장 고성균 소장

정부는 지난 18일 고성균(52·사진) 소장을 31사단장에 임명하는 등 '2010년 후반기 장관급(장성) 장교 진급·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모종화(54) 전 31사단장은 합동참모대학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신임 고 사단장은 강릉 출신으로, 육사 38기로 임관한 뒤 11사단과 17사단에서 각각 대대장과 연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1월 육사생도대장에 임명됐다. 고 사단장은 20일 오후 2시 31사단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藏頭露尾(장두노미)

〈감춰진 진실은 밝혀진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에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각 대학 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1%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장두노미'를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장두노미'(감출 장, 머리 두, 드러낼 노, 꼬리 미)란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노미장두'라고도 한다.

이 말은 원래 중국 원나라의 문인 장가구(張可久)가 지은 '점강진·번귀거래사', 같은 시기 왕엽(王曄)이 지은 '도화녀'라는 문학작품에 나오는 성어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

교수들은 올해 4대강 논란, 천안함 침몰,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 논란,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訃 告

申興秀 어머니 羅州 林氏 종복(카타리나)님께서 老患으로 2010년 12월 18일 21시 善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빈소 : 조선대학교병원 영안실 1분향소
발인일시 : 2010년 12월 21일(화) 08시
영결미사 : 2010년 12월 21일(화) 09시 계림동 천주교회
장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선산

2010년 12월 20일

詞子 申興秀(만대학원 이사장) 熙燦
南秀(전남대학교 명예교수) 熙棟 熙奉
仁秀(㈜·소모그룹 상무) 熙周
漳秀(㈜·대우조선 부장) 熙喆
晸臣(순천대학교 교수) 熙勝
美淑(광덕중 교사) 洙敦
孫 申己周
女 林春子 崔正愛 高熙蘭 金熙淑 李敬淑 金學謹(목포대학교 교수)
婿 高錫太
子婦 林昭怡 崔怡淑 高智娜 金熙碩 李相曄 金敬淑 外孫 金栽勳

(고인의 유지에 따라 부의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연락처 : 017-601-0441 062-231-8901

본법인 이사장 신흥수 대부인 2010년 12월 18일 임종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법인 만대학원 광덕중·고등학교

본 동창회장 신흥수 대부인 2010년 12월 18일 임종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본 대표이사 신흥수 대부인 2010년 12월 18일 임종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남석회공업주식회사
(주)영흥세라믹

본회 명예이사 신남수 대부인 2010년 12월 18일 임종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건축가협회